

# 요한복음의 '보혜사' 성령에 관한 연구

박상천

## 1. 서론

### 1. 연구 동기와 그 목적

한국 교회는 부흥운동으로 세계 기독교 역사상 유례 없는 급성장을 이루어왔다. 그러나 신앙고백적이고도 내적인 성장보다 물량적 성장을 강조한 나머지, 이로 인한 바람직하지 않은 경향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한쪽으로는 "성령의 신성과 인격성에 대한 오해로 인한 과도한 체험주의와 은사주의가<sup>1)</sup> 나타났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인한 성령의 인격적이고도 내적인 역사를 등한시하는 경향<sup>2)</sup>이 나타났다. 이와 같은 한국교회의 실정에 비추어 볼 때 요한복음의 보혜사 성령에 관한 연구가 요청된다.

사도요한에 의해<sup>3)</sup> 약 A.D.90년대<sup>4)</sup>에 기록된 요한복음은 작은 부피의 책이나 그 내용이 심오하고 깊은 책으로써 성경에서 가장 경이로운 책<sup>5)</sup>이며 또한 성령에 관한 우리의 사고와 신앙을 보다 깊고 원숙하게 만들어 주는 책이다.<sup>6)</sup> 그 중에서도

특히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행한 '고별강화'(요14:~16:)에서 우리는 보혜사 성령에 대한 놀라운 교훈을 발견하게 된다. D. Guthrie 역시 이 복음서에는 성령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잘 나타나 있는데 특히 고별강화(요14:~16:)장에서는 성령의 사역에 대해 완전하게 설명이 되어 있다고 한다.<sup>7)</sup>

그 동안 많은 학자들이 요한복음의 '보혜사'(παράκλητος)에 대한 연구를 해왔다.<sup>8)</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보혜사'(παράκλητος)의 인격성(人格性) 및 사역의 예언과 성취에 대한 것은 좀더 구체적인 연구가 요구되는 형편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특히 '보혜사'(παράκλητος)의 인격성과 인격적인 그 본의 사역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요14:~16:)과 그 성취적인 면(사도행전내에서)을 다루어 보고자 한다.

특히 이승미는<sup>9)</sup> "사도 요한은 초대교회 즉, 에베소와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성령의 은사와 관련된 문제들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서 요한복음에서 미래의 교회를 위해 성령에 대한 새로운 자료들을 선택하여 성령의 주된 사역(main function)에 관해서 강조했다"고 한다.

본 논문의 연구동기는 요한복음 14~16장에 나타난 성령님을 살펴봄으로써 한국 교회의 불건전한 성령이해를 바로 하고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불가결의 요소인 성령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를 돕고자 사도요한을 통하여 계시된, 인격적이신 '보혜사'성령님을 연구함으로써 바람직한 성령관을 고찰 하고자 하는 것이다.

### 2. 연구 범위 및 방법

본 고(考)의 연구 범위는 '보혜사'(παράκλητος)에 대한 언급이 있는 예수님의 고

1) 박봉량, "성령의 신학적 이해" 「기독교 사상」 제242호(1978.8), p. 104.  
2) 이승미, "요한복음에 나타난 성령님", 「성경과 개혁주의 신학」 (서울:개혁주의 신학회, 1986)  
3) 전통적인 견해는 내적·외적 증거를 종합하여 저자가 '사도 요한'임을 말한다. Donald Guthrie, 「New Testament Introduction」 김병국·정광욱 역,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2) pp. 226~254. D. A. Carson, Douglas J. Moo, and Leon Morris 「An Introduction to the New Testament」 노진준 역, (서울: 은성, 1994) pp. 153~176. Lee, S. M., "The Parakletos in the Gospel of John" (Th. M-Dissertation, 1982), p. 4.  
4) 대다수의 학자들은 저작 연대를 대략 90년대로 보고 있다. Donald Guthrie, Ibid., p. 268.  
5) D. A. Carson, Douglas J. Moo, and Leon Morris, Ibid., pp. 185~187. Coetzee, quoted in, Lee, S. M., Loc. cit.,  
6) 이상호, "요한 신학 연구의 동향", 「신학사상」 제13집(1976), p. 298.

6) William Barclay, 「성령의 약속」, 서기산 역(서울:기독교문사, 1982), p. 47.  
7) Donald Guthrie, 「신약서론」 김병국·정광욱 공역(서울: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88), pp.223~224.  
8) H. B. Swete, The Holy Spirit in the NT(1910), pp. 129~168. H. Windisch, The Spirit-Paraclete in the Fourth Gospel(1927, 1968). N. H. Snaith, The Meaning of the Paraclete ET 57(1945~60), pp. 47~50. C. K. Barrett, The Holy Spirit in the Fourth Gospel, JTS 1(1950), pp. 1~15. J. G. Davies, The Primary Meaning of Parakletos, JTS 4(1953), pp. 35~38. G. Johnston, The Spirit-Paraclete(1970), p. 99. 등. quoted in, G. E. Ladd 저, 이창우 역, 신약신학」 (서울:성광문화사, 1995), pp. 411~414. Lee, S. M., The Parakletos in the Gospel of John, (Dissertation for degree of Th.M.), p. 59~60.  
9) Lee, S. M., The Parakletos in the Gospel of John, Chap. 14~16, (Dissertation for degree of Th.M.), pp. 8~12.

별 강화(요14:16,26, 15:26, 16:7,13)와 요일2:1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고별 강화에서 장차 보혜사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주님의 신실한 이 예언의 말씀이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성취되어갔는가를 살펴볼것이다.

먼저는 본 고(考)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배경이 되는 요한복음의 저자와 저작연대에 대해 살펴보고 나아가 요한일서와의 관계를 살펴본 다음에

요한복음에만 '보혜사'란 용어가 쓰임으로써 고별강화의 '보혜사 구절'이 후대에 삽입된 것이라는 보혜사구절 삽입설에 대한 잘못을 밝히고 나서, 확실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인 요14:~16:을 살펴봄으로써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기 전 당시의 상황과, 고아처럼 남겨지게 될 제자들에게, 자신 대신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들을 견고케 하심을 통하여 보혜사 성령님이 교회의 큰 위로가 됨을 살펴본다.

본 논문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서 보혜사 성령님의 인격성을 간과함으로 발생한 한국교회의 불건전한 현상들을 밝힌다. 그리고 '보혜사'(παράκλητος)가 나타난 구절들(요14:~16:)에 사용된 대명사와 동사들을 분석하여 성령님의 인격성을 밝힘으로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 교회들이 성경적이고도 건전한 이해를 갖도록 한다. 또한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해 오셔서 사역하실 성령님 역시 '또 다른' 보혜사이시므로 그분의 사역 역시 동일하게 인격적이심을 다루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요14:~16:에 예언된 보혜사의 인격적인 사역의 성취적인 측면으로서 약속된 성령님이 오순절에 오셨으며 인격적인 사역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약속이 성취되어감을 밝히고자 한다.

이와 같은 보혜사에 대한 해석은 성경적인 성령관을 정립하게 하며 미래의 교회가 인격적인 성령의 사역을 이해하고 힘입는 동기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 제1장. 고별강화에서 강조된 '보혜사'

### 1. '보혜사'(παράκλητος)가 나타난 구절들의 삽입설에 대한 고찰

#### 1). '보혜사' 구절 삽입설

'보혜사' παράκλητος라는 명칭이 요한복음의 후반부 특히 고별 강화(farewell

discourse)에 집중적으로 등장하였다는 데에 착안하여 몇몇 학자들은 '보혜사'(παράκλητος)가 나타난 구절들이 본래 요한의 것이 아니고 후대의 삽입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H. Sasse는 그의 논문 "Eer Paraklet im Johannes Evangelium"에서 "우리는 보혜사에 대한 진술들을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야 한다 : 그 복음서 저자 자신이 의미하였던 먼저 부분(요15, 16장)과 보혜사가 성령과 동일시된 후대의 부분(요14장)으로"<sup>10)</sup>라고 말하였다. 이것은 F. Spitta의 의견을 어느 정도 따른 것인데, 그에 의하면 요16: 7f; 16: 12~14; 14:14, 16등은 원래의 것이고, 보혜사와 성령을 동일시한 나머지 부분은 편집자의 것이다.<sup>11)</sup> H. Delafosse는 그의 책에서 "이 원래의 문서는 영지주의적-말시온적 (Gnostic-Marcionitic)인 것인데, '보혜사'(παράκλητος)는 아직도 장차 오실 자로서, 말시온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sup>12)</sup>라고 주장한다. Windisch는 여러 면에서 가 나타난 구절들은 요한복음의 다른 부분들과 사상적으로 일치하지 않으므로 "다섯 개의 보혜사에 관한 언급들은 고별 강화의 본래적 본문(original text)에 속하지 않는다"<sup>13)</sup>라고 결론을 내린다.

#### 2). '보혜사' 구절 삽입설 비판

위와 같은 보혜사 구절 삽입설은 본장(B.3)의 배경을 통해 근거가 없음을 살펴본 바 있다. 보혜사 구절 삽입설에 대해 특히 C. K. Barrett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비판하고 있다.<sup>14)</sup>

첫째로 요한의 글에서 단일한 사상적 연속성을 찾으려 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한 주제를 여러 상이한 관점들로부터 계속적으로 고찰하는 것이 요한의 습관이었다. 그러므로 보혜사에 관한 구절들이 그리스도 자신의 몸에 대해 말하는 구절들이나, 아버지가 믿는 자들에게로 오는 것에 대하여 말하는 구절들과 일치

10) H. Sasse, "Der Paraklet im Johannes Evangelium" Zeitschrift für die neutestamentliche Wissenschaft 24(1925) p. 268. H. Windisch, The Spirit - Paraclete in the Fourth Gospel. trans J. W. Cox(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72), p. 1 quoted in, 임은목 op. cit., p. 9.

11) F. Spitta, Das Johannes-Evangelium als Quelle der Geschichte Jesu (Göttingen: Vandenhoeck und Ruprecht, 1910), pp.31ff., 358. Ibid., p.1의 난하주 quoted in, 임은목 op.cit., p.9.

12) H. Delafosse, Le quatrième Évangile, Paris, 1925. pp. 105ff. Ibid.에서 재인용. quoted in, 임은목 Loc. cit.

13) Ibid., pp.2, 3.

14) C. K. Barret, The Gospel according to St. John(London: S.P.C.K. 1978), pp. 89, 90. quoted in, 임은목, Ibid., p. 10.

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요한의 기본적인 확신이 그리스도교인들 가운데 머무는 신적 현존에 관한 것임은 사실이고 그는 이러한 기본적인 확신을 처음에는 그리스도의 내림이라는 종말론적 관점에서, 그리고 다음에는 성령이라는 관점에서 고찰하고 있다.

둘째로, 만일 보혜사에 관한 구절들을 제거해 버린다면, 마지막 강화에는 성령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남지 않게 된다. 물론 요한이 성령에 대해 전혀 말하지 않으면서 일련의 강화들을 썼으리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가능성이 거의 없다.

셋째로, 보혜사에 관한 구절들에서는 전혀 본문의 배열이 잘못되었다는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 그리고 그 구절들의 근원이나 그것들이 삽입되었다는 데 대한 근거, 방법들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가설은 나오지 않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대로 우리는 보혜사 구절 삽입설이 잘못임을 알 수 있고 또한 그 근거가 없으므로 허황된 주장임을 말할 수 있다. 보혜사 구절들은 후대에 삽입된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요한의 글에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 2. '보혜사'(παράκλητος)의 함당한 해석을 위한 배경들

### 1. 역사적 배경(지상으로부터 예수의 가심)

성령(παράκλητος)에 대한 교리에 대해 Swete는 말하기를 "세상으로부터 예수님의 가심(떠남)을 내포하며, 그리고 자연히 십자가 죽음의 전날 밤까지 보류되어졌다."<sup>15)</sup> 이승미는 그의 논문에서 아버지께로 가시기 바로 직전의 예수님 자신이 '보혜사'(παράκλητος)가 명명되어졌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라고 한다. 하지만 그의 가심은 그의 죽음을 의미한다. 나아가서 십자가위에서의 죽음을 통한 부활과 승천에 의해 그는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이제 예수님은 성령에게 새로운 이름인 '보혜사'(παράκλητος) -요 14:16, 26; 15:26; 16:7)를 주셨다. 이 분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실 자요, 그분의 사역을 완전하게 성취해 오셨던 주님이시요, 승천하시고 영광받으실 주님에 대하여 증거할 분이시다. 그러므로 '보혜사'(παράκλητος)란 새로운 이름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의하여 취임하게 될 새로운 통치의 새벽녘에 바로 주어

졌다

'보혜사'(παράκλητος)는 영광 받으신 그리스도에 대해 그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 하실 것이다(요 15:26; 행 2:4-36). "오순절에 오신 성령님은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의 성령이시다."<sup>16)</sup>

이러한 상황에 대해 최갑중은 그의 논문에서 "고별강화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의 하나는, 이미 여러 학자들이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가고, 오고'라는 주제이다. 이 관용구는 고별 담화에서 무려 37번 이상 나타난다.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예수는 '가시는 분'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보혜사 성령은 '오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다"고 한다.<sup>17)</sup>

### 2. 남아 있는 제자들의 상황

제자들은 그들의 주님이 지상에다 그들을 남겨 둔 채 아버지께로 가야만 한다는 것을 들었을 때, 제자들의 마음은 예수님의 고별에 대한 침울한 기대 때문에 슬픔으로 가득차 있었다. 제자들 중의 한 사람 베드로는 그가 강한 신앙심을 가진 것처럼 보였고 그리고 그는 자신이 그의 생을 예수님을 위하여 희생시키기로 준비되었다고 장담했으나, 사실은 매우 나약했다(요 13:37-38). 제자들은 이제 그들의 보호자도 없이 고아와 같은 입장에 처하여 있다(요 14:18). 이 단계에서 제자들에게 무엇이 가장 큰 위로가 될까? 아들과 똑 같은 한 인격체시오, 아들의 위치를 대신하실 또 다른 '보혜사'(παράκλητος)로서 선물을 받은 것이다! 그들의 주님이신 예수님과 똑 같은 분이신 또 다른 '보혜사'(παράκλητος)가 예수님의 간구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에 의해 주어질 것이라는 그 사실이야말로 그 환경 속에 처한 제자들 사이에 큰 위로가 되어진다. 성령은 지상에서 또 다른 '보혜사'(παράκλητος)로서 있게 될 것이다. 그는 영원히 결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제자들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에 관한 모든 일을 생각나게 하시며, 인도하며, 가르칠지는 단지 단순한 추상적인 영향력이나 하나님의 단순한 힘이 아니고, 하나의 참된 인격체시며, 교회에 대해 커다란 위로가 되신다.<sup>18)</sup> 최갑중 역시 그의 논문에서 보혜사(παράκλητος)가 예수의 사역을 계승하기 위해 오시는 분임을 알 수 있다고 하고, 나아가서 이제는 예수 자

15) H. B. Swete, *The Holy Spirit in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64), quoted in Lee, S. M., *Loc. cit.*

16) L. Floor, *The Lord and the Holy Spirit in the Fourth Gospel*(*Neotestamentica* 2: 122~129)(1968), p. 127. quoted in Lee, S. M., *op. cit.*, p. 67.

17) 최갑중, 「성령과 율법」(서울: 기독교 문서선교회, 1994), p. 115.

18) Lee, S. M., *op. cit.*, p. 67.

신이 자신을 보혜사 성령과 일치시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신다(요14:15~17)고 한다. 그러나 이는 존재론적인 동일시로 보아서는 안되고 기능적인 동일시로 볼 수 있다고 한다.<sup>19)</sup>

### 3). 세상의 상황

14~16장에서 예수님은 종종 그분의 제자들이 남아 있게 될 세상의 미래 상황에 대해 언급한다. “세상의 임금”(14:30)은 이제 오고 있는 중이다. 예수님을 증오한 이 세상은 또한 제자들을 증오할 것이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15:18~19). 세상은 예수님 때문에 제자들을 핍박할 것이며(15:20), 제자들은 회당에서 추방당할 것이며(16:2), 그리고 심지어 죽임까지 당할 것이다(16:12).

15장에서 ‘보혜사’(παράκλητος) - 강화의 배경은 ‘보혜사’ - παράκλητος(한 변호자) - 에 대한 언급이 매우 적당한 것이라는 결과에 따라 보다 명쾌하게 법정적(forensic)이다.

세상의 불신앙은 그리스도의 말씀들(15:22), 그분의 사역들(15:24), (15:26)에 대항하여 도전적이 될 것이며, 제자들 자신들도 증인으로써 나타날 것이다(15:27).

제자들에 대한 세상의 태도에 있어, “미워한다”(15:18~24)와 “핍박한다”(15:20)는 표현으로부터 “죽인다”(16:2) 표현에까지 점차적인 변화가 있다. 성령(The Holy Spirit)에 대하여 표현되어진 ὁ παράκλητος(an advocate)는 이 상황에 있어서 매우 합당한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대로 보혜사 구절이 요한복음에만 독특한 것은 그 배경이 ‘지상’으로부터 예수의 떠남과 ‘남아 있는 제자들의 입장’과 ‘세상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자연스럽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H. Sasse의 주장처럼 14장이 삽입된 것이라는 데는 동의할 수가 없는 것이다.

### 3. 요한복음의 구조에서 본 ‘보혜사’

요한복음에 나타난 성령님을 중심으로 한 구조상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20)</sup>

19) 최갑중, op. cit., p. 115~117.

첫째, 보수주의 학자들은 대체로 요한복음은 후대(A.D.80~100)에 집필되었다고 통상 말한다. 그러므로 저자 요한은 특히 성령의 은사와 관련된, 교회내의 모든 관계들을 알고서 성령에 대한 새로운 강조점을 가지고서 의도적으로 선택된 자료들에 따라서 그의 복음서를 구성 기록했을 것이 분명하다.<sup>21)</sup>

둘째,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분명하다.

그 목적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이심을 믿고 그를 믿어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20:20~31). 따라서, ‘보혜사’ 성령을 이토록 강조한 이유는 누구에게든지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고 오직 성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고별 강화(14~16장)를 중심으로 하여 두 부분, 즉 전반부는 1~13장, 후반부는 14~21장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전반부에서는 1개의 서술 기사(one narrative passage)와 5개의 교훈이 있다(five teaching passages) 즉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 부음(1:29~34), 성령과 증생(3:1~8), 한량없이 주어지는 성령(3:34), 성령과 예배(4:23~24), 영과 생명(6:63), 성령의 약속(9:38~39) 등이다.

후반부에서는 성령에 대한 예수님의 직접적인 교훈을 담고 있는 고별 강화와 부활절 날의 성령(20:22)이 있다.<sup>22)</sup> 특히 고별 강화에서는 성령의 인격적인 사역에 대한 주님의 직접적인 교훈이 나타나있다.

다음으로 전반부에서는 성령에 대한 명칭이 주로 프뉴마(πνεῦμα)로, 후반부에서는 파라클레토스(παράκλητος)가 주로 사용되었으며 동사 시제는 현재 혹은 Aorist와 미래 시제가 각각 사용되었다. Swete<sup>23)</sup>는 3~7장에 나오는 성령에 대해 가르치는 주체는 생명을 부여하시는 자이시며 14~20장에 나타나는 가르침의 주체는 보혜사이다. 전반부에서는 개별적인 것에 관심을 둔 반면에 후반부에서는 그리스도의 몸과 관계한다고 했다.

이상에서 우리는 고별강화에서 성령님의 인격적인 사역이 강조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오순절을 주님께서 바라보시고 미래형태의 동사를 사용하여 제자들

20) 김희신, 요한복음에 나타난 성령, (석사학위 청구논문 고신대학 신학대학원) p.9.

21) 이승미, 「성경과 개혁주의 신학: 요한복음에 계시된 성령님」, (서울: 개혁주의 신행협회, 1986), p. 195.

22) Donald Guthrie, op. cit., pp. 526~535.

23) H. B. Swete, op. cit., p. 168.

에게 약속을 주시기 위함이다. 다음 제4절에서 우리는 '보혜사'의 문자적인 의미를 살펴봄으로 인격적인 사역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 4. '보혜사'(παράκλητος)의 문자적인 의미

Bernard<sup>24)</sup>는 '보혜사'(παράκλητος)는 요한의 저서외의 헬라이어 성경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고 한다. Barrett<sup>25)</sup>는 '보혜사'(παράκλητος)라는 말은 고전 헬라이어에서는 일상적인 용어가 아니었고 그것의 주된 의미는 명사처럼 '법적인 조력자, 대언자'라고 했다.

##### 1). '혹자의 곁으로 부르다'

특별히 "혹자의 도움을 위하여 부름 받은 사람, 재판관 앞에서 다른 사람의 소송을 변호하는 자, 변호인, 피고를 위한 변호사, 법적인 조력자, 즉 대언자(Advocate)"<sup>26)</sup>. "입증하기 위하여 불러들임을 받은 자, 이렇므로 '변호자', '항변인', '그의 성품을 말하기 위해 부름을 받은 피고인의 한 친구', 혹은 다른 방식으로는 재판관의 동정을 얻는 일."<sup>27)</sup> "단어가 의미에 있어서 수동적이기 때문에 그 의미는 '다른 사람의 곁으로 부름을 받은 자', 그리고 용례에 있어서 '도움을 주거나 조언을 위해 부름을 받은 자'이다. 이 말의 고전적 용례에 있어서 이 말은 소송중에 법정에서 변호자에게 적용되었다"<sup>28)</sup>

##### 2). 보편적 의미

"다른 사람의 소송을 그 사람과 함께 탄원하는 사람, 중재자: 그리스도에 관해서는, 하나님의 오른편에서 그의 높아지신 위치에서, 우리의 죄 용서를 위해 성부 하나님께 탄원하는 일(요일 2:1)"<sup>29)</sup>

24) J. H. Bernard, *Gospel according to St. John: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Vol. II. Edinburgh. T&T., 1976. p. 406. quoted in Lee. S. M. op. cit., p. 57.

25) Barrett, op. cit., p. 8. quoted in Lee. S. M. Loc. cit.

26) J. H. Thayer, *Greek 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Edinburgh, 1896. T&T Clark. p. 483. quoted in Lee. S. M. op. cit., p. 58.

27) Moulton and Milligan, *The Vocabulary of the Greek Testament* (London: Jodder and Stoughton, 1930), p. 485. quoted in Lee. S. M. Loc. cit.

28) G. B. Stevens, *The Johannine Theology* (London: Richard D. P. Pickinson, 1894), p. 191. quoted in Lee. S. M. Loc. cit.

##### 3). 광범위한 의미

"돕는 자, 원조자, 조력자, 보좌인: 사도들을 복음전리의 더 심오한 지식으로 인도하기 위해,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하여 시험이나 박해를 견딜 수 있도록 신적인 힘을 제공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올리우신 이후에 그리스도를 사도들과 함께 대신 하도록 성령으로 예정되었다"<sup>30)</sup>

Braumann은 말하기를 " '보혜사'(παράκλητος)의 어원은 본래 도우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자의 수동적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한다.

##### 4). 개혁주의적 입장

그러나 신약성경 속에서 이것이 나타나 있는 구절들은 이 말이 그것의 의미에 대해 성경에서 조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보혜사'(παράκλητος)는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보내진 것이다(요 14:16, 15:26:16:7), 그리고 주어진 것이요, 받게 된 것이다(요 14:16). 그는 단지 말씀을 표현하실 뿐 아니라, 능동적인 도움을 제공하기도 한다. 도우는 자와 중재자의 의미는 말씀의 모든 기회들에 있어 합당하다"고 한다. 용어가 근본적으로 '혹자의 곁으로 부름을 받은 자' 혹은 '혹자의 도움을 위해 부름을 받은 자' 혹은 '지원하기 위해 부름을 받은 자' 즉 대언자(Advocate)라고 Thayer는 말했다.

'보혜사'(παράκλητος)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어 왔다 하지만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주장들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므로 여기서는 개혁주의적인 입장만 밝히고자 한다.

이승미는 그의 책에서 "우리는 '보혜사'(παράκλητος)란 단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즉 '보혜사'(παράκλητος)용어가 근본적으로 '혹자의 곁으로 부름을 받은 자' 혹은 '혹자의 도움을 위해 부름 받은 자' 혹은 '지원하기 위해 부름을 받은 자' 즉 대언자(Advocate)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sup>31)</sup>고 한다. 또한 이승미의 학위논문에서 실린 J. C. Coetzee의 글을 참고하면, 그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또 다른를 보내실 것을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성령님이 곧 (또 다른 보혜사), 즉 다른 대언자이시요 첫 번째 이신 예수님과 같이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한다.<sup>32)</sup>

29) J. H. Thayer, *Ibid.*, p. 483. quoted in Lee. S. M. Loc. cit.

30) *Loc. cit.*

31) Lee. S. M. op. cit., p. 59.

결론적으로 '보혜사'(παράκλητος)는 법정적인 의미에서 '대언자'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요15:26(증거한다)과 16:8~11(책망하신다)를 볼 때 그러하다. 또한 사도행전 내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중요 단어인 'Witness'가 '보혜사'(παράκλητος)의 활동과 직접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상에서 우리는 '보혜사'의 의미가 '도움을 주기 위해 부름을 받은 자'임을 살펴 보았다. 이것은 주님의 떠나가심으로 인해 제자들의 마음속에 근심이 가득하게(요 16:6)되 있을 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요14:1)고 하시면서, 세상에 계실 때에 주님께서 곁에서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도와주셨던 것처럼 곧 오실(오순절)'보혜사'성령님도 제자들 곁에서 그들을 위로하시며 주님이 하셨던 인격적인 사역을 행하시게 됨을 알 수 있다.

## 5. 본문주석

### 1) 다른 '보혜사'(παράκλητος)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요14:16) - 개역성경  
καὶ ἐρωτήσω τὸν πατέρα καὶ ἄλλον παράκλητον δώσει ὑμῖν ἵνα μεθ' ὑμῶν εἰς τὸν αἰῶνα ᾤ, - U.B.S.4판

요한복음의 저자는 약속된 보혜사를 '또 다른' 보혜사로 묘사하고 있다(본문에서 밑줄 친 부분). 여기서 우선 '다른'이라는 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영어 성경(N.I.V.)에서는 'another'로 번역되었다. '또 다른'이라는 표현에서 우리는 이미 제자들을 위한 한 보혜사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요일2:1). 헬라어에는 '다른'이라는 말이 두 가지가 있다. 그것은 ἄλλος와 ἕτερος이다. ἄλλος는 '같은 종류 중에서 다른'(another of the same kind)을 의미하고, ἕτερος는 '다른 종류 중에서 다른'(another of a different kind)을 의미한다.<sup>32)</sup> 라이트 푸트(J. B. Lightfoot)는 이

32) J. C. Coetzee, The Holy Spirit in I John (Paper read at the Nuwe Testamentiese Werkgemeenskap van Suid-Afrika, 1979), p. 28 quoted in Lee, S. M, Ibid., p. 62.

33) Leon Morris, op. cit., p. 648. Behm은 TDNT에서 'allos'의 의미는 임격하게 말하자면 많은 것들이 있을 경우 "다른 것"이다. 이것은 단 두 개만이 있을 경우에 다른 것을 지칭하는

를 설명하면서 "ἄλλος란 똑같은 것이 하나 더 있음을 의미하는 반면에 ἕτερος란 다른 두 개 가운데 하나를 의미한다. ἄλλος는 같은 것을 모은 것이라 할 것 같으면 ἕτερος는 다른 것을 분리해 놓은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어떤 두 가지 물건에 관심을 갖고 관찰한다면 우리는 자연히 그것들을 비교하거나 대조하게 될 것이다. 이때 이 두 가지 물건들이 비슷한 것이어서 비교하게 된다면 ἄλλος이고 같지 않고 반대의 성격을 지닌 것이라면 ἕτερος를 써야 할 것이다. 서로 같지 않은 본질일 때는 ἄλλος를 쓰고 서로 닮지조차 않은 것에는 ἕτερος를 쓴다.<sup>34)</sup> 코에티즈(Coetzee)는 이를 정리하기를 먼저 예수께서는 첫 번째 보혜사이다. 다음으로는 성령께서는 두 번째 보혜사이다.<sup>35)</sup> 브라운은 이를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sup>36)</sup> "예수는 성령의 오심을 '다른 하나의 보혜사로 말한다. 이것은 예수가 그의 제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의미하는 보혜사가 되었음을 내포하고 있으며 성령이 그를 대신하여 제자들과의 임무를 계속하고 있음을 함축하고 있다. 이 사실은 성령과 예수를 나타내는데 사용된 용어의 유사성에 의해 여실히 드러난다. 보혜사가 올 것이다(5:43; 16:28; 18:37). 보혜사는 아버지께로부터 나온다. 그러므로 또한 예수도 아버지께로부터 나온다(16:27, 28). 아버지께서 예수의 요청에 따라 보혜사를 주실 것이다. 그래서 또한 예수를 아버지께서 보내셨다(3:17). 보혜사는 예수의 이름으로 파견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다(5:43). 여러 가지 면에서 예수가 아버지께 대한 것처럼 보혜사는 예수에 대한 것이다. 보혜사가 진리의 영이라면 예수는 진리이다(14:6). 보혜사가 성령이라면 예수는 하나님님의 거룩한 자이다(6:69). '다른 하나의 보혜사처럼 보혜사는 말하자면 다른 하나의 예수다.' 예수는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됨으로 남아 있게 될 제자들을 위해 위로의 근거(14:1)로써 자신의 후계자로 활동하게 될 '다른 보혜사'를 보내 주겠다고 약속한다. 윌리엄 헨드릭슨은 '다른(another)'이란 말은 "나와 같은 자로 나의 자리를 취하고 나의 일을 하는 분이다"라고 말한다.<sup>37)</sup> 이상에서 살펴본바 우리는 예수께서 첫 번째 보혜사이고 성령이 두 번째 보혜사로서 예수의 사역을 계승하는 분임을 알 수 있다.

'heteros'와는 구별된다고 한다. p.53

34) Loc. cit.

35) Coetzee, op. cit., p. 28 quoted in Lee, S. M. op. cit., p. 62.

36) R. E. Brown, op. cit., 126. quoted in G. E. Ladd, op. cit., p. 413.

37) W. Hendriksen Commentary, John, 문창수 역, (서울: 아가페출판사, 1995), p. 363.

## 2) 가르치며 생각나게 하는 '보혜사'(παράκλητος)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14:26). - 개역성경

ὁ δὲ παράκλητος, τὸ πνεῦμα τὸ ἅγιον ὃ πέμψει ὁ πατὴρ ἐν τῷ ὀνόματί μου, ἐκεῖνος ὑμᾶς διδάξει πάντα καὶ ὑπομνήσει ὑμᾶς πάντα ἃ εἶπον ὑμῖν - U.B.S. 4판

이 본문은 완전한 교사로서의 성령의 임무를 보여준다.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에 가르치셨던 것처럼 보혜사도 가르치는 사역 즉, 교사의 사역을 감당하신다는 것이다. '너희에게'는 사도들만 가리킨다고 박윤선은 주석하고 있다.<sup>38)</sup> 비슷한 말이 누가복음 12:12에서 발견된다. 성령은 박해의 시간에 제자들이 말해야 할 것을 그들에게 가르친다. 요일2:27에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고 한다. 또 한가지 사역은 성령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한 모든 것을 회상케하는 사역을 한다는 것이다.

성령이 예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한다는 것은 요한기자의 독특한 표현이다. 그러한 활동은 더욱 '보혜사'(παράκλητος)의 성격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다. 성령의 참된 능력 가운데 하나는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의 말씀을 회상케 하는데 있다. 바꾸어 말하면 제자들이 예수의 가르침을 다 깨닫지는 못했다는 의미이다. 성령께서 가르치는 것은 예수의 가르침과 동일함을 나나낸다. 오늘날의 교회는 성령의 회상케하는 사역으로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에 날마다 감격하게 된다.<sup>39)</sup>

## 3) 증거하는 '보혜사'(παράκλητος)

38) 박윤선, 「요한복음 주석」(서울:영음사, 1985), p. 143.

39) Lee. S. M, op. cit., p. 199.

내가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15:26,27) - 개역성경

"Ὁταν ἔλθῃ ὁ παράκλητος ὃν ἐγὼ πέμψω ὑμῖν παρὰ τὸ πατὴρ, τὸ πνεῦμα τῆς ἀληθείας ὃ παρὰ τοῦ πατρὸς ἐκπορεύεται, ἐκεῖνος μαρτυρήσει περὶ ἐμοῦ· καὶ ὑμεῖς δὲ μαρτυρεῖτε, ὅτι ἀπ' ἀρχῆς μετ' ἐμοῦ ἐστέ -U.B.S. 4판-

예수께서는 장차 세상이 그와 교회를 매우 핍박해 올 것임을 설명하신 후(15:18~25), 이에 맞서 자신을 증거하실 분으로서 성령을 소개하고 있다.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 자신이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보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물론 성령께서 아버지와 아들로 더불어 밀접한 관계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성령을 보낸다는 말은 아버지와 아들 둘 다에 관련된 의미를 지닌다. 즉 여기에는 보내시는 아들의 행동과 이 성령이 아버지로부터 영원히 발현된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sup>40)</sup>

보혜사와 제자들의 동일한 증거(26, 27)는 베드로와 사도들이 "제사장 앞에서 우리는 이 일에 증인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행5:32)."는 말씀과 아주 일치한다. 증거한다는 행위에 있어서 제자들과 성령께서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행4:33). 제자들의 증거는 성령께서 하시는 증거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유는 보혜사의 증거는 제자들에게 예수를 확증시키고 선포의 능력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의 유죄를 고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제자들과 보혜사가 증거하는 것은 똑 같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며 또한 똑같이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증거이기 때문이다. 결코 성령의 역사에만 모두 맡긴 채로 나태하게 한가로운 시간의 여유를 즐길 제자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처음부터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였기 때문에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할 수 있다.<sup>41)</sup>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는 예수의 활동이 그들의

40) W. Hendriksen, op. cit., p. 410.

41) L. Morris, op. cit., p. 332.



증거의 근거가 된다. 즉 제자들의 선포는 예수의 선포의 '반복'이며 '회상'이다. 보혜사의 특별한 기능중의 하나가 예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다(14:26). 그러므로 보혜사는 제자들을 통해 증거하고, 제자들은 보혜사에 힘입어 증언하는 것이다. 따라서 보혜사의 증언행위(15:26)와 제자들의 증언행위(15:27)는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증언행위인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신다는 이 은혜의 사실을 증거해야 할 책임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있는 것이다. 그들은 이 책임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역시 참된 의미로의 증거자는 성령이시며 그 홀로 인간의 마음을 돌이켜 이러한 그리스도 증거의 필요성과 진리를 일깨워 주는 것이다.<sup>42)</sup>

#### 4) 떠나가심으로 오는 '보혜사'(παράκλητος)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요16:10) -개역성경

ἀλλ' ἐγὼ τὴν ἀλήθειαν λέγω ὑμῖν, συμφέρει ὑμῖν ἵνα ἐγὼ ἀπέλθω.  
ὁ παράκλητος οὐκ ἐλεύσεται πρὸς ὑμᾶς· ἐάν δὲ πορευθῶ, πέμψω  
αὐτὸν πρὸς ὑμᾶς -U.B.S. 4판

여기에 이르러 예수님은 당신이 떠나야 함이 제자들에게 유익한 일이라고 하신다. '떠나다'함은 무엇인가? 그것은 보혜사가 오시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예수의 행동이다.<sup>43)</sup> 즉 예수께서 지상에서 떠나 오셨던 곳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성령이 오실 수 없다는 것이다. 보혜사의 사역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구속의 공로를 믿는 자의 생명과 마음속에 적용하시는 사역이다.

'유익이라(συμφέρει)'하는 표현은 가야바가 한 말(11:50)과 동일하다. 가야바의 생각엔 십자가의 처형이 유익하다고 여겼다. 결과적으로 그러했다. 그러나 감히 그가 생각도 할 수 없는 높은 차원에서이다.<sup>44)</sup>

그러면 떠나심이 왜 유익이라고 하는가? 바클레이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sup>45)</sup>

첫째로, 예수께서 육신의 모습으로 계시는 동안에는 사람들은 어느 곳에서든지 예수와 함께 있을 수는 없었다. 그러므로 만나면 헤어져야 한다. 그러나 성령은 언제나 함께 계신다. "볼찌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28:20)." 성령은 끊임 줄 모르는 교제를 영원히 우리에게 주신다.

둘째로, 예수께서 육신에 계실 때는 어느 곳에서도 사람의 정신과 마음과 양심 속에 들어갈 수 없었다. 즉 예수는 시간과 장소의 인간적인 관계로서 제한을 받으셨다. 그러나 영에는 제약이 없다. 사람이 어느 곳에 가든지 성령은 그와 함께 있다.

이처럼 '보혜사'는 예수와 달리 제자들과 함께 머물면서 영원토록 그들과 교제하고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는 자기가 떠나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한 것이라고 다짐을 하시는 것이다. 예수가 아버지께로 떠나간다고 해서 예수와 제자들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단지 그것은 제자들에게는 예수와 보혜사의 교제가 이루어질 뿐이다.

위의 본문 주석에서 우리는 '보혜사'의 인격적인 사역이 굉장히 강조 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은 요일 2:1과 관련하여 볼 때 첫 번째 보혜사는 예수님이시고, 두 번째 보혜사는 성령님이시다. 동일한 '보혜사'이시므로 사역도 동일한 사역이고, 두 분다 인격적인 사역을 하시는 것이다. '보혜사'의 인격적인 사역은 제자들에게 오셔서 자상하게 말씀하시고, 주님이 세상에서 가르치셨던 것을 제자들이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으나, 주님의 구속사역을 적용하시는 '보혜사'성령님의 인격적인 사역(회상)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을 깨닫게 하여, 주님의 증인으로 성장케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것이다.

## 제2장. '보혜사'(παράκλητος)의 인격성(人格性) 강조

### 1. 서언(序言)

현(現) 한국 교회는 여전히 성령에 대한 관심이 높다. 그래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성령 충만"이 대부분이다. 또한 성령 충만이 교회 성장과 성공적인 목회의 지름길인 것으로 생각하는 목회자들도 많은 형편이다. 성도들도 이에 못지 않게 열심이어서 어떤 "체합"을 위해서 기도원을 찾다 보니 기도원은 항상 만원이고 이로 인한 병폐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령 운동 자체가 나쁘다고는 할 수 없

42) Loc. cit.,

43) W. Hendriksen, op. cit., p. 420.

44) L. Morris, op. cit., p. 350.

45) W. Barclay, 요한복음, 박근용 역, (서울:기독교문사, 1988), p. 340.



다. 성령이 없으면 신앙의 확신과 생동성이 사라지고 교회는 생명력이 없는 종교적 기구나 제도로 경직된다. 이와 같이 성령 운동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내용과 방향이 분명하지 않은 성령과 성령 운동은 기독교의 신앙을 맹목적인 신앙으로 만들 수 있고 잡신(雜神)이나 잡령(雜靈)과 복합되기 쉽다. 즉 기독교적인 순수성을 상실하고 그릇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다.<sup>46)</sup>

사도행전 가운데도 성령을 잘못 이해한 사람이 있는데 그는 마술사 시몬이었다. 그는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을 돈을 주고 사려고 했다가 베드로로부터 책망을(“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함께 망할지이다(행8:20)”) 들었다. 이 사건은 성령의 주권성, 인격성을 침해한 사건으로 현상적 성령이해의 잘못을 지적한 것이다.

성령이 인격이라는 교리가 중요한 이유는 먼저, 예배와 존재의 인식이라는 관점에서 중요하다. 만일 우리가 성령을 추상적이고 비인격적인 감화력 또는 능력이라 생각한다면, 우리는 인격체이신 성령님을 예배하고 사랑하고, 인정할 수가 없다. 다음으로는, 성령께 쓰임 받는다는 관점에서 볼 때 중요하다. 성령을 단순한 감화력이나 능력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그것을 붙잡아 사용할 수 있을까?”하는 등의 말을 한다. 그러나 성령을 신적 인격체로 인지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아 나를 도구로 사용할게 하실 수 있게 할까?”라고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체험의 관점에서 중요한데 이렇게 볼 때 우리는 바울이 고전 13:14에서 언급하고 있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다.<sup>47)</sup>

## 2. 인격성에 대한 논쟁

‘보혜사’(παράκλητος)의 속성에 대한 모호한 가정 때문에 그에 대해서 어떤 영이나, 천사의 영의 한 종류로 Johnston 은 보았고<sup>48)</sup>, Schweizer는 하나님의 단순한 능

력이라 보았고<sup>49)</sup>, Brown은 비인격적인 본질의 이름 또는 세상으로부터의 그의 떠남 이후에 그의 제자들과 함께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속적인 영적 실재로 생각했다.<sup>50)</sup>

그릇된 신학자와 불건전한 신비주의자들은 성령의 인격성을 인정하지 않고 마치 어떤 관념적인 것이나 추상적인 것, 혹은 막연한 힘이나 바람 같은 것으로 주장한다. 교회사에 나오는 소시니안(Socinian), 사벨리안(Sabellian), 유니테리안(Uniterian)들이 믿는 성령은 인격적인 신이 아니다.<sup>51)</sup> 소시니안(Socinian)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것에는 하나님의 유효적인 능력은 있으나 인격(Personality)은 단적으로 부인하고 있는데, 이것은 신성(Divine Nature)만을 인정하는 것이다. 퀘이커파(Quakers)들 역시 인격(Personality)은 부인하고 있다.<sup>52)</sup>

교부 시대에 성령의 신성(神性)과 그 인격성(人格性)을 부인(否認)한 소위 마세도니아파(派)(일명 Pneumatomachen, 360년경)가 있었다. 이들은 성령에 대하여 신의 이름이 한번도 들려진 적이 없다는 것, 성령을 단지 신의 능력 혹은 은사라고만 했다는 것, 성령이 인격적 신인 것처럼 언급된 곳이 약간 있으나 이것은 인격화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 등의 이유를 들었다.<sup>53)</sup>

유해무는 그의 ‘개혁교회학’에서 “구약에서는 성령이 하나님의 능력(역사) 또는 인격으로 나타나면서, 때로는 하나님과 동일시되기도 하고, 때로는 구별되어 나오기도 한다. 그러나 구약에서 성령에게 명시적으로 인격이 주어진 것은 아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사자, 말씀, 지혜 등이 하나님의 인격

Press., 1970), pp. 88~155. quoted in Lee S. M. op. cit., p. 59.

49) E. Schweizer, Spirit of God (London: Adams & Charles Black, 1960), p. 97. quoted in, Lee S. M., Loc. cit.

50) R. E. Brown, The Gospel according to John The Anchor Bible, Vol. I, II(London:Geoffrey Chapman, 1978), pp. 1141~1143. quoted in, Lee S. M., Loc. cit.

51) 박경덕, 「오직 성령」(부산: 육일 인쇄 출판사, 1984), p. 41.

52) John Owen, 「개혁주의 성령론」 이근수 역(서울: 여수문, 1988), pp. 58~60.

53) 차영배, 「성령론:성령의 인격적 대도(代禱)와 탄식」(서울:경향문화사, 1994), p.254. 각주에서 차영배는 “마세도니우스(Macedonius)의 추종자들은 프뉴마토마헨(Pneumatomachen)이라고 하는데, 세미-아리안(Semi-Arian)적 이단으로 취급된다. 세베스테(Sebeste)의 유스타티우스(Eustathius)가 이들 중에 들어가는데 마세도니우스(Macedonius)의 사후(死後) 10년 후에야 이들이 나타났고, 카파도기아의 교부들에게서 심한 비평을 받았다. 마세도니우스(Macedonius)는 황제로부터 은총을 임기도 하고 배척을 받기도 하다가 결국 콘스탄티노플(Constantinople)노회의 정죄를 받았고, 그 추종자들은 381년의 대회에서 정죄를 당하여 거의 그 자취가 사라졌다.”고 한 다.

46) 김균진, “성령은 무엇인가?” 「기독교 사상」, pp. 182~183. 서울: 대한 기독교 교서회, 1988, 7.

47) D. Iverson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 D. Iverson의 성령론/ 은사론 특강」 이진영 역(서울: 시대성서사, 1993), pp. 15~16. R. A. Torrey, 「성령의 사역」 이성강 역, (서울: 기독교 문서선교회, 1992), pp. 9~10.에서도 토레이는 “성령의 사역에 대해 있게 되는 그릇된 생각과 광신적인 태도의 원인은 성령을 먼저 인격을 가지신 분으로 알지 못하고서 그분의 사역을 고찰하고 이해하려고 시도하는데 있다”고 한다. 예배의 관점에서 성령의 인격성을 살피는 것이 D. Iverson과 같은 점이다.

48) G. Johnston, The Spirit-Paraklête in the Gospel of John (London:Cambridge University

화된 연장으로 보는데, 때로는 상당히 유동성과 융통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인격화된다”고 한다.<sup>54)</sup>

1). 헬라어로 '영'(πνεῦμα)의 성(性)이 중성인 까닭이다.

'영'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바람'에 그 어원을 두고 있다. 때문에 어떤 영어 성경을 보면 몇몇 구절에서 이 중성 명사의 대명사를 '그분(Himself)' 대신에 '그것(itself)'이라고 번역하고 있다(롬8:16, 26).<sup>55)</sup>

2). 성령께 주어진 이름 때문이다.

성령은 '바람', '능력', '기쁨'등으로 불린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성령은, 성부 하나님을 반영하는 하나의 비인격적인 영향력이라 믿기 쉬운 것이다.<sup>56)</sup>

3). 삼위일체 중 다른 이위(二位)와 비교해 볼 때 성령님은 비인격적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상당히 신비하다. 또 성령께서는 영적인 존재로 나타나시며, 성경에서 보면 성령 그 자체보다는 성령의 감동, 은혜, 능력, 은사 등의 말이 자주 쓰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하나의 인격체라기보다는 어떤 감화력 내지 힘이라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은 단지 성령의 역사에 대한 묘사일 뿐이다.<sup>57)</sup>

4). 구약에서의 용례

구약에는 영에 관한 언급이 많이 나오지만, 구약에서의 성령 사역을 말하기는 쉽지 않다. 구약에서 루아흐(רוח)는 378회 나오는데, 칠십인 역은 그 중 277번을 영(πνεῦμα)으로 번역했고, 다른 용어로 번역될 경우 '바람'으로 나타난다.<sup>58)</sup>

54) 유헤무, 「개혁교의학:송영으로서의 신학」(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7), p.376.

55) D. Iverson, op. cit., p. 16.

56) Loc. cit.

57. Loc. cit.

A.W. Pink, 「성령론」 지상우 역, (서울: 엠마오, 1986), p. 12. 여기에서 핑크는 혹자들은 사도 행전 2장에서 나오는 성령을 “부어 준다”(18, 33절) 표현을 주석하기를 “이 표현은 비유적이지만 문자적인 것이 아니다. 영적인 것은 물질적으로 ‘부어 줄’ 수가 없으므로 그 표현은 문자적인 것이 될 수 없다”고 한다.

딱 두 곳에서 '성령'이란 말이 나온다(ἁγιῶν πνεύματος 시 51:13; 사63:10). 개역 역대상 12:18,19에 '성신'이 나오고, 에스겔 43:5에도 '성신'이라는 번역이 나오지만 원문은 그냥 루아흐(רוח)이다. 헬라인은 본체 개념을 쓰나, 구약은 루아흐라는 말로 힘, 능력, 원동력을 표현한다.<sup>59)</sup>

역사서(민 11:25이하; 삼상 10:6, 10; 19:20,23)등에서는 영이 개인적 은사로 나온다(삿 3:10-웃니엘; 6:34-기드온; 11:29-입다; 삼상 11:6-사울; 민 28:18; 신 34:9-여호수아; 삼상 16:13-다윗). 영은 하나님과 직접 동일시되는데(사 30:1; 학 2:5), 혹 구별되어 나오면서 상당한 독자성이 유지된다. 이는 하나님의 사자와 비교된다. 때로는 하나님의 구체적 사자가 인간에게 갔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에게서 나간, 하나님과는 구별되는 '사자'로도 묘사된다. 그리고 이 사자가 점차 의인화된다. 하나님의 이름, 말씀, 영광 등에서도 이와 유사한 과정을 보게 된다.

그런데 의인화에 의한 영의 독자성 확립에는 망설임이 있다. 즉 인격적 독자성보다는 비물질적이며, 신적 사역, 능력으로 보아야 할 경우가 더러 나타난다. 가령 열왕기상 22:21이하를 보면, 영은 아웨와 동일시되지도 않고, 반대로 거짓 영이니 아웨에게서 나간다고도 하지 않는다. 사무엘상 16:14a에서는 긍정적이나, b에서는 악신이 언급된다. 그럼에도 능력과 해당 주체, 사역과 인격적 독자성 사이에는 별 간격이 없다.<sup>60)</sup>

구약에서 '영'으로 쓰인 두 번째 단어는 네사마(נְשָׁמָה)이다. 이 단어는 이사야 2:22에서는 '강한 호흡'으로, 이사야 30:33에서는 하나님의 '진노의 콧김'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된다. 창세기 7:22에서는 '생명의 호흡'을, 이사야 42:5에서는 '생명력'을, 욥기 26:4에서는 '이해력'이나, '영감의 중심지'를 가리킨다.<sup>61)</sup>

### 3. 성령께서 인격이라는 증거

1). 성경은 성령에 대해 인칭 대명사를 사용한다.

58) R. Albertz & C. Westermann, רוּחַ, in THAT II, 727, 751~752. quoted in, 유헤무, op. cit., p. 377.

59) Y. Congar, Der Heilige Geist, 20. quoted in, 유헤무 Loc. cit.

60) 유헤무, Ibid. pp. 379~380.

61) Behm,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 11h es. S.v. Edited by G. Kittel, translated by G. Bromiley. p. 643.

우리는 인격체들을 언급할 때, 나, 너, 그 또는 그녀라는 단어들을 사용한다. 물론 그러한 단어들이 비인격적인 물체나 사물에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sup>62)</sup> 그러나 성경이 성령에 대해서 인칭 대명사들을 사용할 때, 그것들은 시적인 구절이 아니라 서술적이고 교훈적인 구절에 사용되고 있다.<sup>63)</sup> 우리는 사도행전 13:2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읽는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내게) 따로 세우라 하시니.

λειτουργούντων δὲ αὐτῶν τῷ κυρίῳ καὶ νηστεύοντων εἶπεν τὸ πνεῦμα τὸ ἅγιον, Ἄφορίσατε δὴ μοι τὸν Βαρναβάν καὶ τὸν Σαῦλον εἰς τὸ ἔργον ὃ προσκέκλημαι αὐτούς.

(U.B.S. Fourth Revised Edition)

λειτουργούντων δὲ αὐτῶν τῷ κυρίῳ καὶ νηστεύοντων εἶπε τὸ πνεῦμα τὸ ἅγιον, Ἄφορίσατε δὴ μοι τὸν Βαρναβάν καὶ τὸν Σαῦλον εἰς τὸ ἔργον ὃ προσκέκλημαι αὐτούς.

(According to the Majority Text)

While they were worshipping the Lord and fasting, the Holy Spirit said, "Set apart for me Barnabas and Saul for the work to which I have called them." (N.I.V.)

헬라어의 프뉴마(πνεῦμα)는 영어의 'Spirit'와 같이 중성이다. 그러나 성령은 자주 남성으로 표현된다.<sup>64)</sup> 우리는 여기서 "내가"와 "내게"(밑줄친 부분)라는 단어들을 주목하게 된다. 우리는 또한 이 본문에서 성령이 말씀을 하시고, 지적(知的)이

62) 예를 들면 영어에서 배나 자동차, 또는 교회 같은 것에 남성이나 여성을 부여한다. 이런 일은 분명히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63) R. C. Sproul, 「성령의 신비: 성령은 누구신가?」 김진우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5) p.16.

64) L. Morris, 「요한복음(하)」 이상훈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3), p. 656. Henry Barclay Swete, 「신약속의 성령」 권호덕 역(서울: 은성, 1986), p. 313. H. B. Swete도 τὸ παράκλητον 이 적혀 있어야 할 곳에 ὁ παράκλητος 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성령의 인격성을 강조하고 있다.

며 의도적인 지침을 주고 계심을 주목하게 된다.<sup>65)</sup> 그리고 우리는 그와 유사한 내용이 요한복음 15:26에도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된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 하실 것이요.

Ὅταν ἔλθῃ ὁ παράκλητος ὃν ἐγὼ πέμψω ὑμῖν παρὰ τοῦ πατρὸς, τὸ πνεῦμα τῆς ἀληθείας ὃ παρὰ τοῦ πατρὸς ἐκπορεύεται, ἐκείνος μαρτυρήσει περὶ ἐμοῦ·

(U.B.S. Fourth Revised Edition)

Ὅταν δὲ ἔλθῃ ὁ παράκλητος ὃν ἐγὼ πέμψω ὑμῖν παρὰ τοῦ πατρὸς, τὸ πνεῦμα τῆς ἀληθείας ὃ παρὰ τοῦ πατρὸς ἐκπορεύεται, ἐκείνος μαρτυρήσει περὶ ἐμοῦ·

(According to the Majority Text)

But when the Comforter is come, whom I will send unto you from the Father, even the Spirit of truth, which proceedeth from the Father, he shall testify of me: (K.J.V)

예수님께서서는 여기서 성령을 "그"로 언급하신다(요16:13). 일부 학자들은 이 본문에서 보혜사를 지칭하는 헬라어가 남성이 아니며, 문법 규칙에 따르면 그 대명사가 그 성(性)에 있어서 명사와 일치해야 한다고 답변할 것이다.

그러나 이 구절에는 성령에 대해서 중성(中性)을 사용한 삼입절(진리의 성령 - 진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그 삼입절 바로 다음에 "그(밑줄친 부분)"라는 대명사가 이어지고 있다.

만일 성경 기자가 성령을 비인격적인 중성적 힘으로 생각하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면, "그"라는 남성 대명사를 중성 명사와 밀접하게 연결시켜 사용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sup>66)</sup>

65) Loc. cit.

그 문제는 요한복음 15장에는 분명히 밝혀져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 16:13에는 분명히 드러나 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ὅταν δὲ ἔλθῃ ἐκεῖνος, τὸ πνεῦμα τῆς ἀληθείας, ὁδηγήσει ὑμᾶς ἐν τῇ ἀληθείᾳ πᾶση οὐ γὰρ λαλήσει ἀφ' ἑαυτοῦ, ἀλλ' ὅσα ἂν ἀκούσῃ λαλήσει, καὶ τὰ ἐρχόμενα ἀναγγελεῖ ὑμῖν.

(U.B.S. Fourth Revised Edition)

ὅταν δὲ ἔλθῃ ἐκεῖνος, τὸ πνεῦμα τῆς ἀληθείας, ὁδηγήσει ὑμᾶς εἰς πᾶσαν τὴν ἀληθειαν· οὐ γὰρ λαλήσει ἀφ' ἑαυτοῦ, ἀλλ' ὅσα ἂν ἀκούσῃ λαλήσει, καὶ τὰ ἐρχόμενα ἀναγγελεῖ ὑμῖν.

(According to the Majority Text)

Howbeit when he, the Spirit of truth, is come, he will guide you into all truth: for he shall not speak of himself: but whatsoever he shall hear, that shall he speak: and he will shew you things to come. (K.J.V.)

이 구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교훈적인 구절에서 성령이 인격체이심을 선언하려는 의도를 갖고 계시지 않는 한, “그”리는 대명사를 사용하실 문법상의 이유가 없다.<sup>67)</sup>

2). 성령께서는 인격적인 사역이 나타난다.

(1) 성령은 말씀하신다.

성령은 말씀을 하시고 말씀을 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마 10:19, 20에 “너희를 넘

겨 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 때에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하고 하였고, 행 8:29에는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이라 하였고 21:11에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이라 했고 딤후 4:1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케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좇으리라 하셨으니”라고 하였고 히 3:7에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이라고 하였으며 계 2:7, 11, 29, 3:6, 13, 22, 14:13에도 성령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했다.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기에 때문에 말씀하시는 분으로 나타난다.<sup>68)</sup>

① 성령은 증거 하시는 말씀을 하신다.

요 15:26, 27에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 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 하느니라”라고 하였고, 행 1:8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라고 하였다.<sup>69)</sup> 요한복음 15:26에 나오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 하시는 분으로 제시되어 있다. 단순히 믿는 자로 하여금 그리스도에 관하여 증거할 수 있도록 해주는 조명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증거 하시는 분이므로 제시되어 있는 것이다.<sup>70)</sup>

② 성령은 책망하시는 말씀을 하신다.

요 16:8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라고 하였다.<sup>71)</sup>

③ 성령은 가르치는 말씀을 하신다.

눅 12:12에 “미쁘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하시니라”

68) 박정덕, op. cit., pp 42~43.

69) Loc. cit.

70) R. A. Torrey, op. cit., pp. 17~18.

71) Loc. cit.

66) R. C. Sproul Ibid. p. 17.

67) Loc. cit.

라고 하였고, 요 14:26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라고 하였다. 요일서 2:27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 거하라”고 했다.<sup>72)</sup> 구약에서는 느헤미야 9:20절을 보면 “또 주의 선한 신을 주사 저희를 가르치시며”라고 했다. 이 모든 성경 구절을 미루어 살펴보면 성령은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시려고 오신 인격을 소유하신 분이라는 것이 완전하게 분명해진다.<sup>73)</sup>

#### ④ 성령은 명령의 말씀을 하신다.

행 11:12에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라고 하였고, 16:6, 7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브루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는지라”라고 했다.<sup>74)</sup>

#### (2)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신다.

시 143:10에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케 하소서 주의 신이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라 하였고 사 63:14에 “여호와와 신이 그들로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 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라 하였고 겔 37:1에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고 하였으며 요 16:13에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고 했고 롬 8:14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라고 하였다.

#### (3) 성령은 기도를 도우신다.

롬 8:26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라고 하였는데 여기 “연약”은 지적무지(知的無知)를 가리킨다. 성령은 우리가 무지하여 기도를 잘못할 때에(빌 바를 알지 못할 때에) 탄식하신다. 이 성경 구절로 미루어 보아 성령이 우리를 감동시켜 기도하게 하는 단순한 조명(illumination)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스스로 기도하는 분임이 분명해진다. 그 분은 우리의 가장 깊은 내부에 거하시며 우리가 모르는 때일지라도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가장 깊은 내면으로부터 우리를 위해 성부 하나님께 중보하시는 분이시다.<sup>75)</sup> 약 4:3에도 “잘못 구함이라”고 하였고 모세와 엘리야가 생명을 거두어 달라는 기도는 잘못 구한 기도이다. 또한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할 수 있게 도와주신다. 성령은 우리에게 기도를 하게 하실 뿐 아니라 나아가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하나님께 기도를 하신다.<sup>76)</sup>

#### (4) 기타

동행하신다(요 14:12~20), 근심하신다(엡 4:30), 탄식하신다(롬 8:26), 시기하신다(약 4:5), 위로하신다(요 14:16), 일군을 선택하신다(행 13:2).<sup>77)</sup>

### 4. 인격이신 보혜사의 사역

본고의 연구 범위인 요 14:16, 26, 15:26, 16:7, 13:15:26, 요일 2:1을 중심으로 하여 개역성경에서의 인격적인 사역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요 14:16)

위 본문에서는 보혜사가 세상에 남겨진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 하는 사역을 말하고 있다. U.B.S. 4판에서는 ‘영원히 함께’라는 의미로 되어 있지만 다수 독본(Majority Text)에는 ‘머물다’, ‘거주하다’, ‘남아 있다’는 의미인 μένη 동사가 있어 뜻을 더욱 분명히 해준다. 요 14:16에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곁에 머무시는

72) Ibid., pp. 43~44.

73) R. A. Torrey, op. cit., p. 18.

74) Ibid., p. 44.

75) R. A. Torrey, op. cit., p. 17.

76) Ibid., pp. 45~47.

77) Ibid., pp. 47~54.

보혜사의 인격적인 사역이 나타나 있음을 알 수 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요 14:26).

위 본문에서는 보혜사 성령의 두 가지 인격적인 사역이 나타나 있다. 먼저는 가르치는 교사의 사역이고 다음은 생각나게 하는 즉, 회상케 하는 사역이다(예수님이 3년여 동안의 공생애 기간 중에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모든 것). 다수 독본과 U.B.S.4판과는 별 차이가 없다. 그러나 다수 독본에는 '내가'에 해당하는 강조어인 'εγώ'가 빠져 있다.

내가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 하실 것이요(요 15:26).

위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증거 하는 사역이 보혜사의 인격적 사역으로 나타나 있다. 다수 독본이나 U.B.S. 4판 모두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다만 '그러나'에 해당 하는 'δε'가 U.B.S.4판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요 16:7).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 하시리라(요 16:8)

위 본문에서는 보혜사의 인격적 사역이 책망하시는 사역으로 나타나는데,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는 사역이다. U.B.S. 4판이나 다수 독본 모두 동일하다. '책망한다'는 말은 '훈계하다', '죄를 깨닫게 하다'는 의미이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요16:13; 15:26)

요한복음 15:26에 보면 '진리의 성령' = '보혜사'로 동일하게 쓰인다. 이 본문과 관련하여 16:13절은 보혜사의 사역으로 볼 수 있다. 먼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사역이다. 요한복음 14:6절에는 예수님이 곧 진리라고 했다. 그러므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인격적 사역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장래 일에 대해 말씀하시는 사역이다. 이 사역은 인도하는 사역과 관련이 되어진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씀은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요일 2:1).

위 본문에도 앞에 요한복음에서처럼 '보혜사(Paraklētōs)'가 사용이 되었지만 이 구절에서는 분명하게 '성령'에 대해서 사용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 적용을 시키고 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는 대언자, 변호자의 사역을 하신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은 로마서 8:34절에서 더욱 잘 나타나 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이상에서 살펴본 대로 성령님은 단순한 감화력, 어떤 능력, 비인격적인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것처럼(마 28:19~20)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시고 이후에도 영원히 내주 하시며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친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우리가 범죄할때 탄식하시며 염려하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그저 지식으로만 알아서는 안될 것이다.

이제까지 흔히들 성령을 자신에게 채울 수 있는 것처럼 떠들거나 성령을 마음대로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성령님의 인격성을 받아들이고 자신을 성령에 의해 쳐 복종시키는 훈련이 필요할 것이다.

Torrey는<sup>78)</sup>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 "당신은 정녕 예수 그리스도와 같

이 실제로 인격을 지닌 분으로서, 사랑에 넘치시며 지혜로우시고 강하신 분이시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께 드리는 것과 같은 신뢰와 사랑과 헌신을 받기에 합당한 분으로 인정하는가?" "성령이 자기의 항상 계시는 친구로서 계시고 성령을 항상 계시는 자기의 친구로서 의식하고 자기 삶의 모든 부분을 그 분의 통계에 전적으로 맡겨 드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 제3장. 보혜사 성령의 인격적 사역에 대한 예언

#### 1. 서언

요한복음에 나타난 '성령'에 대한 본문 가운데 쓰여진 동사는 주로 미래형으로 쓰여졌다. 요14:16의 'δώσει' 동사도 미래형으로 '줄 것이다'는 의미이다. 요14:26의 'πέμψει' 동사도 미래형으로 '그가 보낼 것이다'라는 의미이고, 'διδάξει' 동사도 '그가 가르칠 것이다', 'ὑπομνήσει' 동사도 '그가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15:26의 'πέμψω'도 '내가 보낼 것이다'로 미래형이고, 'μαρτυρήσει'도 '그가 증거 하실 것이다'로 미래 형태이다. 16:7에 'ἐλεύσεται'도 '그가 오실 것이다'로 미래, 'πέμψω'도 '내가 보낼 것이다'로 미래이고, 8절의 'ἐλέγξει'도 '그가 책망하실 것이다'로 모두 미래 형태로 쓰여진 동사들이다. 요한복음에 나타난 보혜사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은 예언적인 측면이 있다.

#### 2. 요한복음에서의 사역

##### 1) 내주(內住)하심(요 14:16~17)

성령과 제자들의 관계를 나타내는 세 가지 중요한 전치사가 여기에 나온다. 즉, 'μεθ' (With, 16절), 'παρ' (by, 17절), 'εν' (in, 17절)을 사용하고 있다. 웨스트콧(B.F. Westcott)은 'μεθ'은 성령과 신자들의 교제를, 'παρ'은 인격적 존재의 관계를, 'εν'은 각 개인에게 거하시는 관계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또한 모리스(L. Morris)는 μεθ' ὑμῶν과 παρ' ὑμῶν은 거의 같은 뜻을 지니고 있으며 성령께서 교회 위에 함께 계시

를 강조하는 문형인데 반하여, εν ὑμῶν은 성령께서 믿는 자 곧 그리스도인에게 함께 하심을 강조한다고 설명한다. 이와 관련하여 테니(Merill C. Tenney)는 "너희와 함께(with you)라는 말과 너희 안에(in you)라는 말의 차이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성령께서는 위에서 지켜보시지만, 성령께서 제자들의 삶 속에 들어가셔서 그들을 조정하실 때가 온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러한 경험은 아직 그들의 것이 되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그것은 오순절 날에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기도 하다.

17절에서는 성령에 관한 새로운 개념이 나타난다. 그는 "진리의 영"이다. 성령을 진리의 영과 동일시하고 있는 언급은 신약성서에서도 요한복음의 παράκλητος와 관계된 언급들에서만 3회(14:17:15:26:16:13) 나타난다. 방금 예수님을 "진리"라고 묘사해 놓았고(14:6), 예수님 자신도 자신을 "진리"라 불렀으며,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는 "진리 안에서" 예배하라고 했던 것(4:23, 24)을 살펴볼 때 성령께서 "진리"와 연관되어 있음을 살펴보는 것은 아주 흥미롭다. 여기에서 요한이 의도했던 바는 "진리를 전달하는 영"이었다.

여기에 현재형으로 사용된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라는 뜻은 계속해서 함께 계심을 의미하며,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는 뜻은 장래에도 계실 것을 확실히 알려주고 있다.<sup>79)</sup>

##### 2) 교육과 회상(요 14:26)

여기 성령께서 제자들을 위해 가르치실 모든 것이란, 예수께 관한 모든 것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예수의 십자가, 부활, 승천을 통한 그의 영광 받으심을 포함한다.<sup>80)</sup> 본문에 사용된 'πέμψει' 동사도 미래형으로 '그가 보낼 것이다'라는 의미이고, 'διδάξει' 동사도 '그가 가르칠 것이다', 'ὑπομνήσει' 동사도 '그가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떠나가신 후에 장래에 오실 보혜사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모두 미래형 동사를 쓰고 있으므로 이는 확실히 예언적인 말씀으로 볼 수 있다.

##### 3) 예수께 대한 증거(요 15:26~27)

79) 임은목, op. cit., pp. 48~50.

80) 이승미, "요한복음에 계시된 성령님" 「성경과 개혁주의 신학」 (부산:한국 개혁주의 신학협회, 1984), p. 197.

78) R. A. Torrey, op. cit., p. 22.



예수께서는 14:16에서 자신의 기도의 응답으로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시리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 자신이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보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물론 성령께서 아버지와 아들로 더불어 아주 밀접한 관계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sup>81)</sup>

성령은 구약 시대에는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활동하셨고, 예수의 지상 사역시는 십자가의 고난으로 나아가는 고난의 중,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 하셨다면, παράκλητος는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신 예수, 부활하여 영광 받으신 주님, 장차 대심판주로 오실 주님을 증거하고 있다.<sup>82)</sup> 15:26의 πέμψω도 '내가 보낼 것이다', μαρτυρήσει'도 '그가 증거 하실 것이다'로 미래 형태이다. 위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보혜사 성령님의 사역의 예언임을 알 수 있다.

#### 4) 진리 가운데로 인도(요 16:12~15)

예수께서는 고별 강화에서 우리에게 와서 영원히 거하실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14:17, 15:26, 16:13)이라고 하셨다. 그 자신이 진리의 성령이시므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자연스럽다.<sup>83)</sup> 그러면 모든 진리란 무엇인가? 그것은 완전하고도 절대적인 진리 즉 그리스도안에서 표명된 하나님의 계약적 신실함을 말한다.<sup>84)</sup>

#### 5) 책망하심(요 16:7~11)

성령께서 오셔서 세상 안에서 어떤 역사를 하실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곳은 여기 뿐이다. 성령에 관한 많은 여타의 문절들은, 성령께서 믿는 자들을 위하여 행하실 일에 관한 것이다.<sup>85)</sup>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셔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고 할 때 그 방식은 우선적으로 제자들을 통해서이다.<sup>86)</sup>

여기서 사용된 '책망하다'의 동사는 ἐλέγχο의 미래형인데, 그 의미는 논쟁 중에 있는 사람에게 진리를 보여주어 그로 하여금 그것이 진리임을 알게 하고 그의 잘못

을 인정하고 시인하며 진리를 새롭게 받아들임으로 새로운 결과를 가지게 하기에 듣는 사람이 그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내포하고 있다.<sup>87)</sup> 여기의 '책망하다'라는 동사 역시 미래형태로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것임을 알 수 있다.

예수께서 요 16:9에서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입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본절의 헬라 원문상의 해석은 세 가지가 가능하다.<sup>88)</sup> 첫째, "성령께서 죄에 대한 잘못된 개념에 대하여 심판하실 것이요, 그 죄 때문에 저희들이 믿지 않는다."라는 해석, 둘째, "저희들이 믿지 않으니 성령께서 이 세상을 그 죄로 심판하실 것이요"라는 해석, 셋째, "성령께서 저희들이 믿지 않는다는 그 죄 때문에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요"라는 해석이 모두 가능하다. 이 세 가지 해석이 모두 가능하지만, 두 번째 해석이 가장 타당성이 있는 것 같다. 즉,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앙이 죄가 된다는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준다는 것이다.<sup>89)</sup> 이러한 죄악은 자기 자신을 만물의 중심에 두고 믿기를 거절하는 기본적인 죄이다. 이것이 세상의 죄의 특징이며 옛날부터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아들을 보내셨으나 세상이 그를 영접하여 믿지 않았다.<sup>90)</sup> 이승미는 예수님을 합법적으로 증거 하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에 따라 교회가 설교와 교육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는데 이를 듣고도 믿지 않을 때 세상은 이미 유죄 선고를 받고 있다고 한다.<sup>91)</sup> 이에 대하여라 함은 성령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을 통하여 아버지께로 가신 것은 그에게 죄가 있어서 합법적인 유죄 선고가 아니라,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은 의로웠음을 밝힌다는 것이다.<sup>92)</sup> 성령은 세상 임금인 사탄이 심판 받았음을 깨닫게 해주신다. 세상 임금에 대한 심판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당한 사탄의 패배를 의미한다. 여기서 사용된 '심판 받다'의 κερνται는 완료 시제로서 하나님의 아들과 사탄과의 법정적 대결에서 이미 선고가 완료된 상태를 말한다.<sup>93)</sup> 16:7에 'ἐλεύσεται'도 '그가 오실 것이다'로 미래, 'πέμψω'도 '내가 보낼 것이다'로 미래이고, 8절의 'ἐλέγξει'도 '그가 책망하실 것이다'로 모두 미래 형태로 쓰여진 동사들이다.

81) L. Morris, op. cit., pp.330, 331.

82) 고재수, op. cit., p. 267.

83) 이승미, op. cit., p. 203.

84) Loc. cit.,

85) Leon Morris, op. cit., p. 351.

86) 이승미, op. cit., p. 201.

87) B.F. Westcott, The Gospel According to St. John. Grand Rapids: Wm. B. Erdmans, 1918. quoted in 임은복, op. cit., 55

88) L. Morris, op. cit., p. 352.

89) Loc. cit.,

90) Loc. cit.,

91) 이승미, op. cit., p. 202.

92) Loc. cit.,

93) Loc. cit.,

우리는 이러한 보혜사 성령님의 사역들도 예언의 말씀임을 알 수 있다.

### 제4장. 사도행전에서의 예언 성취

#### 1. 서언

요한복음이 성령의 본질적인 면을 계시해 준다면 사도행전은 성령의 사역에 관한 중요한 가르침을 계시해 주고 있다. 사도행전의 경우 이를 보다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령에 해당하는 프뉴마(Πνευμα)라는 말이 무려 70회나 나오고 있다. 이는 성령이라는 용어를 가장 많이 사용한 누가복음이 36회, 고린도전서가 40회 사용함에 비해 볼 때 사도행전에 성령이라는 용어가 얼마나 빈번히 사용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sup>94)</sup>

제4장에서 이미 살펴본 것처럼 이러한 성령의 사역에 대한 성취적 모습은 '성령 행전'이라고도 불리는 사도행전과 서신서 등에서 찾아볼 수 있으나 본 고(考)의 연구 범위인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주님의 신실한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 2. 오순절에 성취된 성령님의 인격적인 사역

사도행전 1장에서 성령 강림에 관한 준비와 이에 관련된 말씀의 기록을 살펴볼 수 있는데 첫째로 제자들은 예수께로부터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명령을 받았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행 1:4).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이것은 예수께서 요한복음에서 거듭 약속

94) 황승룡,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사역', 「그 말씀」(서울:두란노, 1996,2) p. 136.

하셨던 '보혜사'에 대한 말씀과 일치한다. 요한복음 14:16의 '내가(예수) 내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14:26의 '아버지께서 내(예수)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15:26의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16:7의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등의 말씀과 일치함을 볼 수 있다. 즉, 사도행전 1:4절의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고(Aorist) 이것은 바로 성령 특히 '보혜사'를 가르킨다고 볼 수 있다.<sup>95)</sup>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였느니라”(행 1:5).

이 말씀은 부활의 주님께서 직접 해 주신 말씀이다. 이 내용은 이미 복음서에서 4번이나(막 3:11 ; 막 1:8 ; 눅 3:16 ; 요 1:33) 예언되었던 것인데 그 당시에는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된 것이었다. 그런데 약 3년이 경과한 후 누가를 통하여 여가서 다시 부활하신 주님의 직접 음성을 또 다시 듣고 있다.<sup>96)</sup> 이승미도 사도행전의 기록목적(행1:1,2, 1:8, 9:15)을 정리하면서, “사도행전은 그 주제와 목표가 부활 승천하신 예수그리스도며 ... 이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사도들의 배후에 있었던 성령의 역사로 가능했음을 기록으로 보여준다”고 한다. Holwerda도 “예수께서 이 세상에 사역하고 계실 때 제자들은 예수의 말씀과 행동을 잘 이해하지 못했고 진리에 대해서 올바르게 증거하지도 못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 무서워 문을 닫고 숨어 있어야 했다(요20:19). 그러나 성령이 오셨을 때 제자들은 십자가의 의미와 예수님과 그분의 사역의 의미를 이해하였고, 담대한 증인이 되었다.”<sup>97)</sup>

#### 1) 사도행전장

F. F. Bruce는 “예수님은 고별 강화에서 다섯 번이나(요14:16,26;15:26;16,7,13) 성령이 오시리라는 약속을 하신 바 있다. 그리고 그 다섯 구절에서 강조되고 있는

95) 이승미,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계시된 성령사역에 관한 연구”, 「고신대학 논문집」 제17집(부산:육일문화사, 1989), p. 14. 강병도, 「사도행전:호크마 종합주석」(서울:기독교지혜사, 1992), p. 33에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은 요14:16,26; 15:26; 16:7,13에 나타난 것같이 주님께서 마지막 날 밤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라고 한다.

96) 이승미, Loc. cit.,

97) David E. Holwerda, 「요한복음」 류호준 역, (서울:기독교 문서선교회, 1994), pp. 171~172.

바가 행 1~15장에 나타난 성령의 개념의 토대가 되는 것이라는 점은 특별히 주목할 만한 일이다”고 한다.<sup>98)</sup>

사도행전 1:1,2절에 나타난 성령 사역의 주된 강조점은, 베드로와 모든 사도들이 택함을 받고, 명령을 받은 것은 오직, 그리고 절대적으로 주님으로부터 되어진 것임을 기억시키는 것이며, 사도들의 활동의 주관자, 설교의 주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심을 계속 알리는 것이다.<sup>99)</sup> 1:5절의 ‘성령으로의 세례’는 삼위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과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질 구원 역사적 사건들 중의 하나에 속한다.<sup>100)</sup> 1:8절의 ‘성령’은 지금까지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동일 사역 차원의 성령이 아니고, 새로운 차원의 의미를 담고 있는 ‘성령’일 것이라고 한다.<sup>101)</sup> 1:16에 베드로의 ‘가룟유다’에 대한 해석에 대해 “성령님은, 베드로로 하여금 구약의 말씀을 기억나게 할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과 모든 행적을 통하여 나타난 주님의 말씀과 사역들을 다시 생각나게 하심으로 구약의 말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하게 성취되고 있음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증거하게 하신다”고 한다.<sup>102)</sup>

## 2)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에는 오순절 성령강림과 베드로의 설교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승미는 베드로의 활동과 관련하여 사용된 ‘성령’의 전 후 문맥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중요한 용어들이 있는데 이 용어들은 성령님의 사역, 활동 및 그 결과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sup>103)</sup>

사도행전 4:13에 의하면 베드로는 ‘학문없는 범인’이었지만, 오순절에 약속대로

임한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능력있게 복음을 전했다.<sup>104)</sup> 베드로는 원고 없는 즉흥 설교를 하였는데 이것 역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한 것이다. 베드로는 구약 요엘서를 정확하게 인용하여 오순절에 적용하고 있고 그의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로 이어진다. 막14:21에 주님께서서는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라고 하셨다. 당시에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래서 군병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으려 할 때 분을 이기지 못하고 칼을 뺀 적이 있다(막14:47; 눅22:51; 요18:11). 그런데 본문 23절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 준 바 되었다’고 한다. 전에는 깨닫지 못했지만 보혜사 성령님의 인격적인 역사를 힘입어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담대하게 증거하고 있다. 또한 이전 같으면 분을 이기지 못하여 쉽게 검을 잡았던 베드로가 이제는(15) 차근차근 조리있게 자신들의 입장을 변호하고 있다.

나아가서 베드로는 다윗의 증거를 인용하고 있는데(25~32) 여기서 베드로가 인용한 구절은 시116:8~11절이다.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베드로는 다윗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내다보고 예언했다고 한다.<sup>105)</sup> 예수님의 ‘승천’을 말한 후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부여하셨다고 한다. 예수님의 승천과 성령강림의 밀접한 관계에 대해서는 요16:7에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 따라서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성령강림의 필요 불가결한 조건임을 알 수 있다.<sup>106)</sup> 사도행전 2장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사도들이 실제로 능력있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었음을 보여 주고, 이것은 결국 예수님의 거듭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신실하게 성취되었음을 보여 준다.<sup>107)</sup>

## 3. 교사로서의 ‘보혜사’(παράκλητος)

요한복음 14:26절은 ‘가르치는 성령’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 하지만 이 사역을 다른 사역들(예: 회상, 진리인도등)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는 없다고 본다. 먼저 보혜사는 성도가 어떻게 행동할지를 가르친다. 사도행전 8:26~29의 말씀은 빌립에게 어떻게 행하여야 하는 것을 가르치시는 성령의 역사를 볼 수 있다.

98) F. F. Bruce, 「요한복음」 이용복, 장동민 역, (서울: 아가페출판사, 1996), p. 50.

99) 이승미, op. cit., p. 13.

100) Ibid., p. 15.

101) Ibid., p. 16. 이곳의 각주에서 이승미는 요14:16,26 ; 15:26 ; 16:7의 보혜사 성령님이 바로 오순절에 오신 성령님과 동일한 분으로 이해하고 있다.

102) Ibid., p. 18.

103) 이승미, op. cit., p. 8.

그 용어들은 다음과 같다.

μαρτυρεω -τους -τυριον διδασκα -χη κηρυσσω

(증거하다) (증인) (증거) (가르치다) (교훈, 도리) (전하다, 설교하다)

ευαγγελιζω δυναμις τερας σημειον

(복음 전하다) (능력, 권능) (기사) (표적, 징조)

104) 변종길, “베드로의 설교연구” 「그 말씀」, (서울: 두란노, 1997. 9), p. 73.

105) Ibid., pp. 81~82.

106) Ibid., p. 83.

107) 이승미, op. cit., p. 22.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성령으로부터 어떻게 행할 것을 구체적으로(밀줄 친 부분) 지시 받은 빌립은 간다게의 내시를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하게 되었고 또 그는 물세례까지 받게 되었다. 이 본문에서 보듯이 주의 사자=성령으로 동일시되고 있음을 볼 수 있고 ~에서 ~까지 구체적으로 지시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행 5:19절 참조-베드로의 경우).

사도행전10:17~20은 베드로에게 행할 것을 가르치심으로 이방 사람인 고넬료가 구원받고 성령 세례까지 받는 것을 볼 수 있다.<sup>108)</sup>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하더니 마침 고넬료의 보낸 사람들이 ...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가라 내가 너희를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본문에서 보혜사 성령께서 고넬료의 종들을 베드로에게로 보내었고, 베드로 또한 보혜사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넬료는 그의 일가(24)와 함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높이고 물세례를 받았다(47, 48).

또한 보혜사는 성도가 말할 것을 가르치신다. 예수께서는 마태복음10:18~20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고 하셨다. 이 본문에도 내주(內住)하시는 보혜사 성령과 말할 것을 가르치시는 사역이 나타나 있다.

사도행전4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나편서부터 40년간 앓은뱅이 된 사람(행 3:2, 4:22)을 고친 후(행3:3~10)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다가 붙잡혀 산

108) 김명남, op. cit., p. 184.

헤드린 공회에서 심문 받는 것이 기록되어 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는 허가된 사람들 곧 서기관들과 같은 사람들만이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심문하는 자리에서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고 엄히 물었던 것이다. 그때 두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하여(8절)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할 것을 가르침 받아서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고 말했다. 이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본래 학문 없는 무식쟁이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4:13).<sup>109)</sup> 이들이 말한 것은 자신들의 창작물이 아니고 성령으로부터 받은 것이다.<sup>110)</sup>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의 모든 활동을 통하여, 예수님의 말씀이(눅12:1~12; 요14:26; 행1:8) 신실하게 성취되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sup>111)</sup>

사도들이 말한 것을 보면 담대하였고, 그들이 행한 일은 ‘착한 일’이라고 부정할 수 없는 말을 하였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외쳤으며, 또 사편118:22의 예언된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여 증거 하는 일과 천하의 유일한 구원의 이름을 예언자적인 자세로 말하였던 것이다.

#### 4. 회상케 하는 자로서의 ‘보혜사’(παράκλητος)

요한복음 14:26에 “성령이 ... 내가 너희에게 말한 바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시리라”고 한다. 여기서 보혜사의 사역은 바로 ‘회상케 하고’, ‘기억나게’하는 사역이다. 요한복음3:16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 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니라”고 했다. 이 말씀은 믿는 자 - 그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 영생을 가진다는 것을 포함한다.<sup>112)</sup>

베드로 12제자들 중 한 명인 그는 오로지 회상케하는 자로서의 Parakletos의 가르침을 통하여 예수님의 말씀의 참 의미를 분명히 이해할 수 있었다(행10:1~45). 요3:16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바를 이해한 후에 그것에 대한 베드로의 고백은 다음과 같다: “그를 믿는 자마다 그의 이름을 통하여 죄의 용서를 받는다”(행10:43).

109) 김명남, Ibid., p. 185.

110) 이승미, op. cit., p. 25.

111) Ibid., p. 24.

112) W. Hendriksen, op. cit., p. 141.

그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것을 이방인들에게 명령했다(행10:48). 요한에 있어 예수님의 말씀과 사도행전에서 회상케하는 자로써 Parakletos를 통한 베드로의 말들을 비교해 보면:

……πᾶς ὁ πιστεύων εἰς αὐτόν …(요3:16)  
…… πάντα τὸν πιστεύοντα εἰς αὐτόν. (행10:43)

오순절 이후에 제자들은 παράκλητος<sup>113)</sup>의 도움으로 말씀하셨던 바를 보다 더 잘 상상할 수 있었으며 이해할 수 있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계시에 대하여 열려질 수 있게 되었다.<sup>113)</sup>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요한복음 14:13,14에 강조되어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들어주시겠다”는 예수님의 신실한 약속대로 사도행전 3:6에서 주님의 말씀을 회상케 하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앓은뱅이를 일으키는 것을 볼 수 있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성령은 베드로로 하여금 구약의 말씀(시41:9;69:25;109:8;행1:17~20)을 기억나게 하여, 가롯 유다의 결말이 바로 구약 예언의 성취임을 깨닫게 되었다.<sup>114)</sup> 오순절 성령 강림때, 그 놀라운 분위기 속에서도 베드로와 모든 사도는 성령의 도움으로 즉시 구약 요엘 선지자의 예언 말씀을 기억하고, 그 예언의 성취임을 확신하고는, 무리들에게 능력 있게 가르칠 수가 있었다. 고넬료 가정이 복음을 받고, 성령이 기이하게 이방인의 가정에 임하고, 방언 말하는 것을 보고는, 조금 후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다’고 고백했다(εμίρηθην δὲ τοῦ ῥήματος κυρίου…행11:16).<sup>115)</sup>

### 5. 증거 하는 자로서의 ‘보혜사’(παράκλητος)

요한복음15:26, 27에는 증거 하는 보혜사의 사역이 나타나 있다.

113) A.T. Robertson, Word Pictures in the New Testament, Vol. V(The Fourth Gospel The Epistle to the Hebrews)(London:Harper & Brothers Publisher:1932), p.255 quoted in Lee.S.M, op. cit., p. 74.

114) 이승미, op. cit., p. 18.

115) 이승미, 「고신대학 논문집17집」, op. cit., p. 47.

15:26 “…진리의 성령이…증거하실것ियो” μαρτυρήσει

15:27 “…증거 하느니라”

사도행전 1:8에서 보면 동일한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볼 수 있다.

1:8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ἔσεσθέ μοι μάρτυρε”

이 내용은, 베드로와 사도들이 성령님으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이며, 사도들을 향한 성령님의 주된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분명히 밝혀 주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현재 부활의 주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듣고는 있으나 이 내용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감격적인 경험, 적용은 없다. 예언적 차원에서 그 말씀을 듣고 있다. 그러므로 사도들은, 얼마 후에는 예수님의 그 말씀의 결과를 깨닫고 주님을 더 감격하여 증거할 것이다.<sup>116)</sup> 사도행전2:32절과 3:15절은 베드로의 설교 내용이다. 이는 즉석에서 행해진 것으로 성령의 도우심(가르침, 회상케하심)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베드로는 사도들이 모두 주님의 부활의 증인임을 강조하고 있다. 사도행전5:32에서도 “우리는 이 일에 증인이요…성령도 그러하니라”고 하여 요한복음(15:26, 27)에 예언된 증거 하는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동일하게 표현하고 있다. 여기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영광 받으심)에 대한 두 유능한 증인이 있는데, 먼저는 사도들이고 다음으로는 성령님이다. 각주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증거 방식에 따라 참된 증거를 하고 있다:“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 기록하였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 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 하시느니라”(요8:17, 18).<sup>117)</sup>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으로 성령님께서 베드로를 인도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고넬료 가정의 모든 무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 즉,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이다(행10:40~41).<sup>118)</sup>

116) Ibid., p.16.

117) Ibid., p. 28.

118) Ibid., p. 36.

사도행전 15:8, 9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 하시고...” 이 본문은 예루살렘 공회에서 베드로가 한 말이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교회에 가입하도록 하신 표가 바로 “증거 하는 성령”을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셨다는 사실이다. 또한 성령님은 주님의 죽으심, 부활, 승천, 재림을 포함한 구원 완성의 전체를 구약에 의해 증거하시고 적용하시는 분이시다.<sup>119)</sup> 사도행전에서 ‘증거’, ‘증인’의 용어가 강조적으로 사용된 것은 장차 사도들이 활동하게 될 이 세상의 상황이 결코 순탄하지 않을 것이며, 복음에 대하여 긍정적이지 못할 것임을 내다 보신 것임에 분명하다.<sup>120)</sup>

### III. 결 론

이상의 연구에서, 우리는 요한복음에 독특하게 나타나고 있는 ‘보혜사’의 인격적인 사역을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이유와, 인격적인 사역이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성취되어가는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를 통하여 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지면서 ‘보혜사’(παράκλητος)의 인격성을 강조하셨으며, 그것도 고별강화에 국한해서 사용하셨는가에 대한 의문이 풀렸다. 그것은 예수님이 떠나시는 이별이라는 정황 때문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심으로 제자들을 위로해 주셨다. 이것은, 우리(교회)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다시 오심으로 우리에게 용기와 소망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동시에 선물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자신의 제자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주님의 약속은 오늘을 살아가는 교회들에게도 동일한 위로와 사랑을 느끼게 한다.

본 연구의 본문이 되는 고별강화의 보혜사 구절이 후대에 삽입된 것이라는 H. Sasse의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밝혔으므로 보혜사 성령에 대한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으로 본 연구의 본문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알 수 있다.

또한 성령님의 인격성을 살펴보았는데 성령님은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주님께

서 교훈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여기 성령님이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한다는 것은 요한복음의 독특한 표현으로 ‘보혜사’가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는 것은 요 16:13에 의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교훈과 일치하는 교훈이다. 이러한 ‘보혜사’의 사역은 주 예수님께 대한 제자들의 믿음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책망하시고,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갈 때 탄식하시며, 염려하시며 대언자로서 우리를 변호하시는 인격적인 사역을 수행하심을 살펴보았다. 따라서, ‘보혜사’ 성령님의 인격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사도들이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생명을 걸고 전했던 것처럼, 오늘날 점점 악해져 가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도, 인격적인 성령님의 인도와 영향하에서, 주님의 복음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성취된 ‘보혜사’ 성령님의 사역에서 우리는 요한복음 14장~16장의 고별강화에서 예언된 ‘보혜사’의 사역이 사도행전에서도 거듭 약속이 되어졌고(1:4, 1:8) 마침내 오순절에 이르러 ‘하나님의 큰 일’이 성취됨을 살펴보았다. 또한 사도행전에서는 ‘증거’사역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고, 사도들의 증거의 핵심은 그리스도 중심적이었음도 살펴보았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고별 강화에서 약속하셨던 성령의 사역에 대한 예언이 오순절을 통하여 성취되고 오순절의 성령님의 인격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주님의 약속이 사도행전에서 주의 사도들의 인격과 전도활동을 통하여 성취된 것을 알 수 있다. 우리 역시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과 초대교회들이 누렸던 동일한 기쁨을 얻게 되며 또한 약속하시고 예언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주님의 신실함을 다시 한 번 보게 된다.

119) Ibid., p. 34.

120) Ibid., p. 17.



## 참고 문헌

## 1. 국내서적 및 역사

- 김근진 “성령은 무엇인가?”, 「기독교사상」 (서울: 대한 기독교서회, 1988)
- 김명남 「일하시는 성령」 (서울: 두란노, 1991)
- 김명혁 「성경과 신학」 제3권(서울: 한국 복음주의 신학회, 12986)
- 박윤선 주석(요한복음) 서울:영음사, 1992
- 박정덕 「오직성령」 (부산: 육일 인쇄출판사, 1984)
- 변종길 신약총론 강의안(부산: 고려신학대학원)
- \_\_\_\_\_, “베드로의 설교 연구” 「그 말씀」 (서울: 두란노, 1997.9)
- 유해무 「개혁교의학」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7)
- 이승미 「성경과 개혁주의 신학: 요한복음에 계시된 성령님」 (서울: 개혁주의 신학회, 1986)
- 차영배 「성령론: 성령의 인격적 대도와 탄식」 (서울: 경향문화사, 1994)
- 최갑중 「성령과 율법」 (서울: 기독교 문서선교회, 1994)
- 황승룡 「그 말씀」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사역”(서울: 두란노, 1996)
- 호크마 종합주석(요한복음) 강병도 편, 서울: 기독교지혜사, 1992
- A. W. Pink, 「성령론」 지상우 역, (서울: 엠마오, 1986)
- Bible Knowledge Commentary(John), Edwin Blum 저, 임성빈 역, 서울: 두란노, 1993
- Bultmann, R. 요한복음서 연구 허혁 역, 서울: 성광문화사, 1979
- David E. Holwerda, 「요한복음」 류호준 역, (서울: 기독교 문서선교회, 1994), pp. 171~172.
- D. A. Carson, Douglas J. Moo, and Leon Morris 「An Introduction to the New Testament」 노진준 역, (서울: 은성, 1994)
- D. Iverson, 「너희가 믿을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진영 역, (서울: 시대성서사, 1993)
- Donald Guthrie, 「신약서론」 김병국, 정광옥 공역,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88)

- Henry Barclay Swete, 「신약속의 성령」 권호덕 역(서울: 은성, 1986)
- J. C. Ryle, 요한복음서 강해(1) 지상우 역 서울: 기독교 문서 선교회, 1986
- Jhon Owen, 「개혁주의 성령론」 이근수 역, (서울: 여수문, 1988)
- Ladd G.E. 「신약신학」 이창우 역, (서울: 성광문화사, 1995)
- Leon Morris, 요한복음(하) 이상훈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3
- Matthew Henry's Commentary, (John) 이기문 역, 서울: 기독교문사, 1993
- R. A. Torrey, 「성령의 사역」 이성강 역, (서울: 기독교 문서선교회, 1992)
- R.C. Sproul, 「성령의 신비」 김진우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 William Barclay, 「성령의 약속」 서기산 역, (서울: 기독교문사, 1982)
- William Hendriksen Commentary, (John) 문창수 역 서울: 아가페출판사, 1995.

## 2. 논문

- 이승미 베드로서신에 나타난 성령과 그의 사역(개혁신학과 교회 제4호) : 고려신학대학원, 1994
- \_\_\_\_\_, 요한복음에 계시된 성령님, (성경과 개혁주의 신학), 1986
- \_\_\_\_\_, 사도베드로를 통하여 계시된 성령사역에 관한 연구(고신대학 논문집), 부산: 육일문화사, 1989.
- 고재수, 성령의 증거, (고신대학 논문집 제14집), 1986
- Lee, S. M. The Parakletos in the Gospel of John, Th. M. dissertation, Potchefstroom University, 1982
- 전영학, 요한복음의 Parakletos 연구(요13-16장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서울신학대학원, 1994)
- 김재수, 요한복음에 나타난 성령(고별강화 전후비교), 석사학위논문(고신대학 신학대학원, 1987)
- 김희신, 요한복음 14:26의 Parakletos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고신대학 신학대학원, 1989)
- 임은묵, 요한문서에 나타난 Parakletos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서울신학대학원, 1988)



3. 성경

한글 개역성경. 대한 성서공회

King James Version.

Kurt Aland, Matthew Black, Carlo M.Martini, Bryce M.Metzger, and Allen Wikgren, Greek New Testament, Munster/Westphalia : United Bible Societies, 1994.

New International Version.

Zane C. Hodges/Arthur L. Farstad The Greek New Testament(According to the Majority Text): Thomas Nelson Publishers, 1985

4. 사전

J. Behm, "Paraclets" in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 Vol.II, edited by G. Kittel(Grand Rapids: Eerdmans, 1978)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 11h es. S.v. by Behm Edited by G.Kittel translated by G. Bromiley.

Walter Bauer's 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and Other Early Christian Literature : The University of Cicago Press, 1979

# 성령의 전으로서의 교회와 개인에 관한 연구

신하라

## I. 서론

몇 년만 지나면 2천년대가 시작된다. 우리는 지금 21세기를 내다보는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구약의 복잡한 예식도 없으며 번거로운 절차도 없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의 신앙의 많은 모습은 여전히 구약적인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듯한 인상을 준다. 물론 그 의도가 그러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여전히 구약회귀의 모습을 가진 것이 많다. 구약을 지나 신약시대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지닌다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인 아니 가장 무심코 사용하는 단어인 '성전'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한다. 우선 여기서 먼저 허순길 교수의 글을 인용코자 한다 "현 교회의 많은 지도자들은 교회당을 성전이라고 부르기를 좋아한다. 이분들은 아직도 성전에 대한 구약적인 관념을 버리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구약적인 틀을 벗지 못하고 있는 로마 천주교의 이념의 잔재를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 성전의 시대가 아니고 교회의 시대에 살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개혁자들은 일찍부터 성전이란 말을 쓰지 않았다"1) 위에서 지적했듯이 현재 우리에게 성전이라는 단어는 건물(교회당)에 대한 용어로만 이해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본 논문에서는 교회당에 대한 성전이라는 단어의 사용에 대한 부적절성을 언급하고 싶었고, 신약시대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성전이 어떤 의미인지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기를 원한다. 특히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

1) 허순길, 『개혁해 가는 교회』, (서울:종회출판국, 1996), 183-184.